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소비자물가지수 소화 후 개별 이슈로 상승

2021.6.11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yoy +5.0%) 발표 이후 일시적인 급등이라는 분석에 상승하기도 했으나, 물가 급등세가 뚜렷하다는 부담으로 상승을 대부분 반납하기도 했음
- 그러나 제약 업종이 임상 시험 결과 등에 힘입어 급등하고, 물가지표 결과에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며 지수의 본격적인 상승을 이끔
- 결국 금융, 소매판매 업종이 부진 했으나 제약, 기술주, 반도체 업종이 상승 주도
- 다우 +0.06%, 나스닥 +0.78%, S&P500 +0.47%, 러셀2000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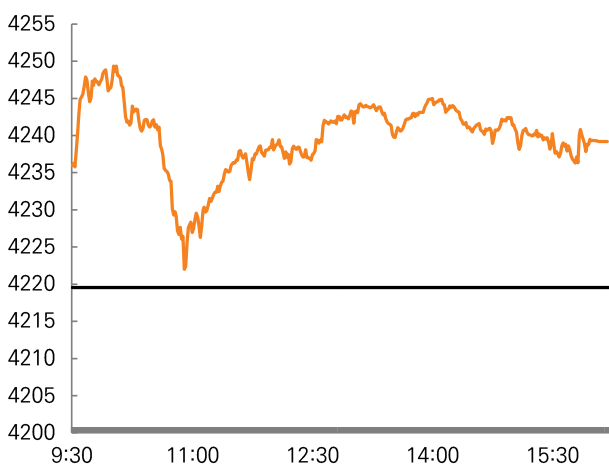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브리스톨 마이어스(+3.04%)는 림프종 관련 긍정적인 3상 결과를 발표 후 강세
- 일라일리(+3.34%)는 ALX Oncology와 임상 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강세
- 서비스나우(+5.25%)는 골드만 삭스가 내년까지 성장 가속화를 주장하자 강세
- JP모건(-1.56%) 등 금융주는 금리가 상승 후 하락 전환 하자 약세로 전환
- 클로버 헬스(-15.25%), 게임스톱(-27.16%) 등 밈 주식 급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23% MSCI 신흥 지수 ETF는 0.8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2.2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5%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증시가 소비자물가지수 소화 후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한편, 오후 들어 상승폭 확대를 주도한 업종은 반도체, 제약, 소프트웨어 등이며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업종 상승을 유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3,224.64	+0.26	홍콩항생	28,738.88	-0.01
KOSDAQ	987.77	+0.92	영국	7,088.18	+0.10
DOW	34,466.24	+0.06	독일	15,571.22	-0.06
NASDAQ	14,020.33	+0.78	프랑스	6,546.49	-0.26
S&P 500	4,239.18	+0.47	스페인	9,133.80	-0.24
상하이종합	3,610.86	+0.54	그리스	924.30	+1.20
일본	28,958.56	+0.34	이탈리아	25,638.19	-0.4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소비자물가지수 ② ECB 통화정책회의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시장 예상(yoy +4.6%)보다 상회한 전년 대비 5.0%로 급등.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 지속적인 경제 정상화와 지난 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저 효과를 반영. 이 수치는 원자재 가격 및 임금 상승, 공급 제약으로 인한 결과.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전년 대비 3.8%로 발표돼 예상(yoy +3.4%)을 상회. 연준 목표 2.0%를 초과 했으며 1992년 6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

자세한 품목을 살펴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가격이 전월 대비 1.8%(yoy +6.5%), 지난 달 물가 상승을 끌어 올렸던 중고차는 전월 대비 7.3%(yoy +29.7%) 급등. 신차가 전월 대비 1.6%(yoy +3.3%) 상승했고 의류 가격은 전월 대비 1.2%(yoy +5.6%) 상승. 가전 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0.8%(yoy +6.9%) 상승. 대체로 상품과 중고차 가격 상승이 물가를 이끔.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0.4%(yoy +2.9%) 상승. 대중 교통비가 전월 대비 4.0%(yoy 15.9%) 상승. 항공료는 전월 대비 7.0%(yoy +24.1%) 상승. 주거 비용은 전월 대비 0.3%(yoy +2.2%), 임대료는 전월 대비 0.3%(yoy +2.1%) 상승. 식량 가격은 전월 대비 0.4%(yoy +2.2%) 상승. 에너지 가격은 보합을 보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28.5% 급등

품목을 보면 결국 반도체 부족에 따른 중고차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상품 가격, 경제 정상화에 따른 항공료, 호텔 등도 물가 상승 주요 요인.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주장하고 있듯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추정. 반도체 등 공급 병목현상이 개선될 수 있고, 경제 정상화가 이어져 서비스 품목 가격들 또한 완만해질 수 있기 때문. 이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장 초반 상승폭 확대. 그렇지만 여전히 인플레이 압력 확산에 대한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을 키움. 장 후반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슈 소화 후 개별 업종 변화에 따라 등락

ECB가 기준 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채권 매입 프로그램 또한 유지한다고 발표. 더불어 유로존 성장률을 0.6%p 상향 된 4.6%로 발표해 예상(4.3%)보다 상향 조정폭이 더 컸음. 물가 상승률 또한 0.4%p 상향 된 1.9%로 발표. 대체로 ECB는 시장 기대보다 경기 회복이 더 빠르게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줬음.

한편,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가 개선 되고 있으나 정책 변경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고 주장. 특히 긴축을 논의하는 것 조차 시기 상조라고 언급 하는 등 비둘기적인 발언을 이어감. 유럽 주식시장은 ECB의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유로화도 보험권 등락을 보이는 등 영향이 크지 않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제약, 바이오 업종 상승세 지속 Vs. 밌 주식 급락

브리스톨 마이어스(+3.04%)는 림프종 관련 긍정적인 3상 결과를 발표 후 강세. 일라일리(+3.34%)는 ALX Oncology와 임상 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강세. 이는 위 또는 위 식도 접합부 암 환자에 초점. 바이오젠(+1.91%)는 애널리스트들의 공격적인 목표주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지속되자 오늘도 상승. 서비스나우(+5.25%)는 골드만 삭스가 내년까지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강세. 세일즈포스(+1.74%) 등 여타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동반 상승. Signet Jewelers(+13.99%)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동일점포 매출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급등. 엑손모빌(+0.16%), 셰브론(+0.58%), 코노코필립스(+0.82%)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써모피셔사이언티픽(+3.73%)은 코로나 이후 산업개선 기대 심리로 상승

JP모건(-1.56%), BOA(-1.49%) 등 금융주는 장 초반 금리 상승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국내 금리가 하락 전환 하자 금융주도 하락. 클로버 헬스(-15.25%), 웬디스(-3.13%), 클린에너지 플스(-15.59%)는 물론 게임스톱(-27.16%), AMC엔터(-13.23%), 베드베스앤 비온드(-8.05%) 등 밌 주식은 급락.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주요 변수가 해소되자 투기적 거래 관련 밌 주식에서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이자 관련 종목 급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07%	대형 가치주 ETF(IVE)	-0.06%
에너지섹터 ETF(OIH)	-1.19%	중형 가치주 ETF(IWS)	-0.24%
소매업체 ETF(XRT)	-1.07%	소형 가치주 ETF(IWN)	-1.49%
온라인소매 ETF(IBUY)	-0.19%	대형 성장주 ETF(VUG)	+0.95%
금융섹터 ETF(XLF)	-1.17%	중형 성장주 ETF(IWP)	+1.35%
기술섹터 ETF(XLK)	+0.74%	소형 성장주 ETF(IWO)	+0.1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70%	배당주 ETF(DVY)	-0.11%
인터넷업체 ETF(FDN)	+1.4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6%
리츠업체 ETF(XLRE)	+1.0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0%
주택건설업체 ETF(XHB)	-1.17%	미국 국채 ETF(IEF)	+0.36%
바이오섹터 ETF(IBB)	+1.69%	하이일드 ETF(JNK)	+0.16%
헬스케어 ETF(XLV)	+1.71%	물가연동채 ETF(TIP)	+0.52%
곡물 ETF(DBA)	+0.58%	Long/short ETF(BTAL)	+0.80%
반도체 ETF(SMH)	+1.31%	모멘텀 ETF(MTUM)	-0.0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5.02	-0.13%	+0.37%	+5.25%
소재	537.55	-0.56%	-2.19%	+0.06%
산업재	871.31	-0.47%	-1.59%	+1.69%
경기소비재	1,381.89	+0.69%	+1.96%	+3.64%
필수소비재	726.74	+0.65%	-0.48%	+1.69%
헬스케어	1,458.85	+1.69%	+3.00%	+2.91%
금융	618.80	-1.12%	-2.79%	+1.76%
IT	2,475.69	+0.75%	+2.75%	+7.42%
커뮤니케이션	260.92	+0.72%	+2.19%	+5.87%
유틸리티	333.06	+0.68%	+0.65%	+1.95%
부동산	285.29	+0.95%	+2.69%	+11.2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제약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23% MSCI 신흥 지수 ETF는 0.8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12.2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5%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되돌림 현상이 유입되며 상승. 물론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을 감안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수 등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인 영향.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소비자물가지수 소화 후 강세를 보인 점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한편, 미 증시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주요 변수가 해소 된 후 개별 업종 및 종목의 변화에 따른 것. 이를 이끈 업종은 반도체, 제약, 일부 필수 소비재, 소프트웨어 등인데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업종 상승을 유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수만 놓고 보면 일시적이라는 기대로 미 증시 상승을 이끌었으나, 곧바로 예상을 크게 상회한 수치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 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합의하는 과정을 보여 준 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 이는 FOMC에 대한 우려가 완화 될 수 있기 때문. 특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을 발표 했음에도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처럼 FOMC도 비슷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반도체, 제약 등 미 증시 상승을 주도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자물가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지난달 발표(mom +0.8%)를 소폭 하회 했으나 예상(mom +0.4%)을 상회.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yoy +4.2%)는 물론 예상(yoy +4.6%)을 크게 상회한 5.0%로 발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 3.8% 상승. 중고차, 상품, 여행, 레저 등이 상승을 주도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38.5만건) 보다는 개선된 37.6만건을 기록 했으나 예상(36.9만건) 보다는 부진. 4주 평균 수치는 지난 주 42.8만건에서 40만 2,500건으로 감소. 연속 신청건수는 375.7만건에서 349.9만건으로 감소 돼 고용시장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미 국채 금리, 급등한 물가에도 불구하고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미국이 이란 제재 일부 해제 소식에 하락폭을 확대 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관련 제재가 핵 협상과 관련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일부는 제재가 강화되자 되돌림이 나타남. 이런 가운데 OPEC이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수요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영향은 제한. 한편, 인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건을 하회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고,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 했으나 세부 항목을 보면 경제 정상화 관련 품목의 상승이 이를 주도 했다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달러화는 소비자물가지수,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소화한 후 보험권 등락. 유로화는 ECB에서 비둘기적인 성향을 지속하자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역외 위안화, 브라질 헤알, 멕시코 페소 등 여타 신흥국 환율 또한 보험권 등락을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임

국채금리는 물가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발표 직후 10년물 기준 5bp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렇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고 국채 금리는 하락 전환 했는데 이번 수치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기 때문. 10년물 금리는 상승을 뒤로하고 하락 전환. 한편,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33배)을 하회한 2.29배, 간접입찰이 12개월 평균(63.1%)을 상회한 64.0%로 발표되었으나 영향은 제한

금은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자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제 정상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충돌하며 혼조. 곡물은 주간 수출 데이터를 통해 옥수수는 예상을 하회 했음에도 상승 했는데 금요일 일부 인덱스 펀드의 롤오버 매매에 따른 것으로 추정. 대두는 하락 했으며 밀은 강보합.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10%, 철근 2.03%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0.29	+0.47	+2.15	Dollar Index	90.040	-0.09	-0.52
브렌트유	72.52	+0.42	+1.70	EUR/USD	1.2175	-0.04	+0.40
금	1,896.40	+0.05	+1.23	USD/JPY	109.31	-0.29	-0.89
은	28.031	+0.10	+2.02	GBP/USD	1.4177	+0.42	+0.50
알루미늄	2,476.00	+0.71	+2.95	USD/CHF	0.8947	-0.11	-0.97
전기동	9,890.00	-0.89	+1.04	AUD/USD	0.7755	+0.31	+1.27
아연	2,995.00	-0.79	+0.35	USD/CAD	1.2093	-0.15	-0.12
옥수수	616.50	+1.11	+8.83	USD/BRL	5.0705	+0.16	-0.12
밀	683.75	+0.22	+1.11	USD/CNH	6.3867	-0.01	-0.20
대두	1,459.50	+0.78	+3.99	USD/KRW	1115.80	+0.04	+0.20
커피	160.80	+0.94	+0.72	USD/KRW NDF1M	1112.26	-0.42	-0.3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437	-5.39	-18.81	스페인	0.386	-1.40	-8.20
한국	2.090	-1.00	-10.50	포르투갈	0.387	-1.30	-7.60
일본	0.055	-1.40	-2.90	그리스	0.797	-2.90	-0.70
독일	-0.256	-1.20	-7.30	이탈리아	0.794	-3.40	-10.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